

조선이공대학, 동명중학생 대상 진로직업체험



조선이공대학교(총장 김봉복)는 최근 광주 동명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세관에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해양조 노조, 장성경찰에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



장성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최근 (주)보해양조 노조위원회로부터 관내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 받았다. /장성=김영호기자 yongho@

나주시 드림스타트센터-한국쓰리엠, 공부방 지원



나주시 드림스타트센터와 한국쓰리엠 나주공장 사회공헌단은 최근 나주시 남외동의 한 공부방을 방문해 책상, 가구 등 25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고 장판·도배 교체 봉사를 벌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K-water 광주전남본부, 수도사고 합동 모의훈련



K-water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7일 여수권관리단 상황실에서 현장 실무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수도사고 위기를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이산천 취수장 설비사고로 인해 취수장 내 배수펌프 운영이 중단돼 침수가 발생, 단수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전개였다. (K-water 광주전남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경원·권정희씨 장남 현우(두산중공업)군 성석현(전 수자원공사)·장충업(신가초등학교 교사)씨 장녀 수진(초등학교 교사)양=19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웨딩홀 1층 세종홀.
▲김기식(보성군청 주민복지실장)·안금숙씨 아들 우재(한국 기상산업진흥원)군 최순복(전 인천남동시범공단 본부장)·송희순씨 딸 현정양=20일(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조철호(청송건설·덕진건설 대표이사)·한경민씨 차남 준환군 이채신·이정애씨 장녀 지은양=26일(토) 오후 5시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동창동문회

▲2013광주공교(동맥인) 한마음 큰잔치=20일(일) 오전 9시~오후 5

시 모교 운동장. 주회 광주공교 총동창회(회장 홍석태) 062-511-1946.
▲송원고 총동문 한마음대축제=20일(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송원대학교 운동장 062-384-7447.
▲조선대학교 조우회(회장 민경태) 월례회=22일(화) 오후 6시 산밭들식당(산수동) 062-234-5336.

중친회

▲(사)전주씨대 동중친회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

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5대중독(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니코틴)에 대한 상담을 제공. 21일(월) 오후 6시 30분 062-412-1461, 062-413-1195.
▲제1회 전국 동요경연대회 개최(주최 (사)한국음악협회 합평군지부)=11월 9일(토) 오후 2시 합평군민회관 2층, 경연부문 및 경연곡은 독창, 중창 중(지정곡 1곡, 자유곡 1곡), 자격은 전국 초·중·고·일반 동요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 참가신청은 11월 4일(월), 시상식은 각 부문별 최우수 1팀·우수상 2팀 문의 010-2047-9237(윤선명 사무국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

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혼자 힘으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모집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교육학회 정서중심코칭2급 자격과정 개설 안내=19일, 26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광신대학교 진리관 101호 문의 및 접수 010-8299-6237.

부음

▲김용대씨 별세 영주·태호·영숙·영희·영미씨 부친상=발인 19일(토) KS병원장례식장 2분향소 062-960-4444.
▲이길남씨 별세 김영진(전 농림부장관·국회의원)·근진(강진농협 조합장)·옥진(도암교회목사)·성진(개인사업)·경남(광주한빛교회 권사)씨 모친상 이해근씨 빙모상 의정(아시아항공 부사장)씨 조모상=발인 19일(토) 강진산립종합장례식장 061-433-2300.
▲이백윤씨 별세 상희(코아정밀(주))·양희·점자·정자·미옥씨 부친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홍순례씨 별세 조주현·소현·섭현·용석·금호·영애씨 모친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강의철씨 별세 양수(강양수 성형외과 원장)·성윤·주연·수연씨 부친

상 정윤영(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수)씨 시부상 정병태(인천 스텐달 치과의원)·정용환(나주 정웅관치과원장)씨 빙부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임한태씨 별세 동영(동구청)·동욱(관세청)·해경·숙경·옥경·금희씨 부친상 권미애(농협)·김연희(인천 운누리병원)씨 시부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늦깎이 신인감독 박중익 씨 전국 노인영화제 우수상 수상

“95세 어머니 일상 담아... ‘孝’ 참된 의미 되새겨보길”

“시대가 변하면서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어요. 효도에 대한 인식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효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계기를 만들고 싶어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박중익(62) 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 ‘어머니의 오야’라는 단편영화를 만들어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에 출품한 그는 최근 144편의 작품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홀로 사는 고령의 어머니가 자녀들의 전화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애잔하게 풀어간다.
박 감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작은 캠코더를 들고 95세 어머니의 일상을 담기 시작했다. 노모는 이른 아침 일어나 부지런히 노인당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비슷한 연배 지인들과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자녀들 이야기로 하루를 보내고 해가 기울기 전 집에 돌아와 잠들 때까지 텔레비전을 응시한다.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휴대전화가 떨어지지 않는다.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16살의 나이에 시집온 소녀는 10남매를 키우며 검버섯 가득한 할머니가 됐다. 인자한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아취어 갔다. 느린 걸음이

지만 휠체어를 끌고 한 번에 가던 노인당, 이제는 숨이 차서 두 번을 쉬어야 겨우 도착한다. 야속한 세월이 기력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워 카메라를 들었다.
매주 일요일, 어머니를 모시고 담양·화순 등 교외로 나가 산과 들을 보여주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몇 삼아 홀로 지내던 어머니는 사람만 보면 어린 아이처럼 밝게 웃는다.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관광지를 가지 않아도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아하는 어머니를 보며 박 감독은 생활 속 효도를 강조한다.
“요즘 사람들은 워낙 바쁘게 살다보니 명절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전화로 자녀들 목소리 듣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당신이 혼자자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하시는 거죠. 그걸 저희 가족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평소 어머니께 전화 드리면 항상 ‘오야’(오냐)의 전라도 방언)하고 반겨주시는 것에서 영화 제목을 결정했다.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 등의 제목도 고민했으나 어떤 단어보다도 전라도의 구수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오야’가 영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서울노인영화제는 36편의 출품작으로 시작했다. 수많은 영화가 개봉하고 상영되지만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투영해 나갔다.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올해에는 144편이 출품됐다.
수많은 출품작 중 ‘어머니의 오야’가 수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다른 출품작들은 촬영이나 편집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기대는 전혀 못했죠. 서툰 작품이지만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효’라는 소재가 더해진 게 주효했던 것 같아요.”
지난 2012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우연히 찾았다가 ‘영상촬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익힌 박중익 감독, 그는 미디어봉사단으로 이웃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으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 아직 감독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촬영과 편집에 받아내는 지 모를 정도로 푹 빠져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영상을 배운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박 감독은 앞으로 자신이 받은 선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겠다고 밝게 웃었다.
/양세철기자 hot@kwangju.co.kr



“♥손편지로 기쁨과 감동 나누세요”

전남우정청, 21일부터 3주간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34년째 시집 안가는 누나야... 누나 너가 편하게 지내는 동안 부모님 이마에 주름은 더욱 깊어간다. 부디 좋은 사람 일년 만나서 올해 가기 전에 가보자~”
편지로 진실과 감동을 나누는 ‘100만 편지쓰기’가 광주·전남에서 펼쳐진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동안 광주·전남 지역민이 참여하는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인 이 행사는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교육청 등 1400여개 기관, 55만 명이 참가를 희망했다. 지난해에는 43만 통의 편지를 써 우리나라 편지쓰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광주·전남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편지를 쓴 뒤 편지봉투 상단에 ♥를 표시해 발송하면 된다. 가장 많은 편지를 쓴 단체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광주시장상·전남지사상·교육감상 등을 시상한다.
오는 21일 광주우체국 우다방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신달자 한국시인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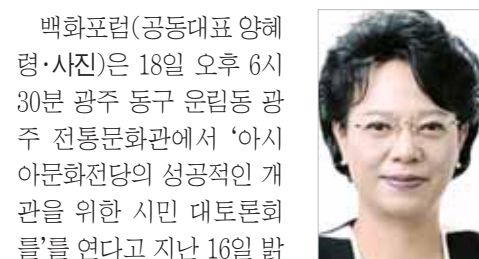
기보배 런던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병조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수, 로버트할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등 각계 명사 1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위촉하고, 소설가 한승원 씨의 ‘시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특강도 진행된다.
또 롯데백화점은 ‘시민과 함께하는 편지쓰기’를, 서광주우체국은 ‘수능기원 편지쓰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편지쓰기’를 펼친다.
31일 호남대에서는 ‘우체국 창조경제 포럼’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에서는 ‘대한민국 어린이 우표 전시회’가 열린다.
김병수 전남지방우정청장은 “편지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가슴에서 시작해 가슴으로 끝나는 소울(soul) 미디어”라며 “광주·전남 지역민 모두가 편지 한 통으로 기쁨과 감동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소방장학금 후원 (재)룩수장학회에 200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7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조선한정에서 (재)룩수장학회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소방공무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기아차 임직원들과 영흥삼 룩수장학회 이사장, 최재선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임근수 광주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 김 공장장은 2000만원의 장학금을 룩수장학회에 전달했으며 임 이사장은 기아차에 감사패를 건넸다.
김 공장장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수고하고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를 표한다”며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룩수장학회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법인으로 현재까지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성공개관 위한 백화포럼, 오늘 시민 대토론회



백화포럼(공동대표 양혜령·사진)은 18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윤림동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준비한 첫 토론회라는데 의미가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울곡초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광주 울곡초등학교는 언어폭력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울곡초 전교 회장단과 명예경찰소년단 학생들이 지난 15일 ‘언어폭력 없는 바른 말 정착학교 선언’을 했다.
앞서 8일과 10일에는 1·2학년 언어폭력 예방 4행시 짓기, 4~6학년 언어폭력 예방 표어 만들기 실시했다. 4행시와 표어 우수작품은 복도에 전시해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장남령 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언어폭력 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삼가 故인의冥福을 빕니다) for a deceased person, including details about the service date, time, and location.